

〈일반논문〉

서구 우생 담론의 역사 I* - 우생학(eugenics)과의 연관을 중심으로 -

김 호 연 **

〈목차〉

- I. 들어가며
- II. 전근대의 우생담론
- III. 오나니즘(onanism)
- IV. 맬서스(T. R. Malthus, 1766-1834)의 인구담론
- V. 18세기-19세기 퇴화론
- VI. 나오며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초역사적인 멘탈리티라 할 수 있는 우생 담론의 역사를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개괄해보는 것이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우월과 열등/적격과 부적격이라는 사회 이념이나 혐오 문화의 기저에 우생 담론이 관성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우생 담론은 19세기 중반 등장한 우생학(eugenics)에 힘입어 과학의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이분법적 사유양식을 자연화·정당화하면서 더욱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생 담론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2000000003452).

**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미래인문학융합학부 부교수

은 한 사회의 규범 문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특정 시대의 부적격자 또는 우성 인간에 대한 이해는 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을 둘러싼 논의가 분분한 요즘, 새로운 규범 문화의 방향을 숙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주제어

부적격자, 적격자, 성경, 플라톤, 캄파넬라, 오네이다 공동체, 멜서스, 오나니즘, 퇴화론, 우생학

I.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초역사적인 멘탈리티라 할 수 있는 우생 담론의 역사를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개괄해보는 것이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우월과 열등/적격과 부적격이라는 사회 이념이나 혐오 문화의 기저에 우생 담론이 관성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생 담론은 19세기 중반 등장한 우생학(eugenics)에 힘입어 과학의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이분법적 사유양식을 자연화·정당화하면서 더욱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¹⁾ 서구에서 우생 담론은 한 사회의 규범 문화, 특별히 도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²⁾ 따라서 특정 시대의 부적격자 또

1) 여기서 우생 담론은 일반적인 의미의 우열의 원리에 기초한 적격과 부적격을 구분하는 초역사적인 멘탈리티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생학은 19세기 중반 골턴이 창안한 과학이자 이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는 우성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 사회 주도 세력의 도덕관이나 이념을 이해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먼저 이 글에서 우생학과 관련을 맺고 있는 우생담론을 개괄하고, 이후 서구의 우생 담론과 우리의 그것을 비교한 뒤, 과학으로서의 우생학이 한국 사회에 이전되는 과정과 영향, 그리고 현재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후속 연구로 펼쳐보이고자 한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생물학적 특질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은 어렵풋이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모호하기 십상이다. 정상과 병리, 우월과 열등, 그리고 적격자(the fit)와 부적격자(the unfit)라는 이분법적 사유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구분 짓기도 그럴싸한 근거와 판단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았던 적이 많았다.³⁾ 많은 이들이 실재라고 믿고 있는 인종이 실은 사회적·이데올로기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⁴⁾ 다 알다시피,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틀린/나쁜 근거에 천착하여 우월과 열등/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적 사유를 창안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에 대한 구분 짓기가 유행했었다. 우생학과 관련하여, 특별히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에서는 열등한 존재, 즉 부적격자는 부도덕함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부도덕성은 정신적 열등함(feble-minded)과 연결되어 타락한 사회적 상태의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결국 빈곤, 범죄, 정신병, 지적 장애, 방랑, 매춘 등

2) 케이는 골턴의 우생학과 그 지지자들이 모럴리스트였다고 본다. 당시 우생론자들은 도덕이 정신 역량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겼고, 이는 지능 테스트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이 글에서 아노미 상태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을 우생담론 또는 우생학과 연관하여 서술하는 이유이다. Howard L. Kaye, *The Social Meaning of Modern Biology: From Social Darwinism to Sociobiology*, 1997(하워드 L. 케이 지음, 생물학의 역사와 철학 연구모임 옮김, 『현대생물학의 사회적 의미』, 뿌리와 이파리, 2008).

3) 스티븐 제이 굴드, 김동광 옮김, 『인간에 대한 오해』, 사회평론, 2003.

4) 염운옥, 『낙인 찍힌 몸: 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 돌베개, 2019.

과 관련한 혐오스런 이미지를 창출했고, 이러한 특질을 가졌거나 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제거되어야 할 존재들로 규정되었다. 이는 후일 전 세계로 퍼졌고, 유대인 대학살(the Holocaust)로 귀결되었다.⁵⁾ 반대로 적격한 존재로만 구성된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려는 열망도 동시에 존재했다. 19세기 서구의 국가 이성의 시대에 국가 간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국민 건강이 중요했고, 이는 국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⁶⁾ 국민 건강의 문제는 정치적 사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정책과 실행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과연 우생 담론과 그것의 실제적 적용은 19세기 이후의 창조물이었을까? 세상에는 적격한 존재와 부적격한 존재가 따로 있고, 부적격한 존재는 세상에서 추방하거나 제거하고, 적격한 존재, 즉 우생인간은 어떻게든 창조하고자하는 열망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었을까? 서구 역사에서 우생 인간 창조에 대한 욕망, 이와 짝을 이루는 부적격자 제거, 그리고 그 실행은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서구 역사 속의 우생 담론을 통사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우생학과 어떤 연결 고리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를 숙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성경(the Bible), 플라톤(Plato), 캄파넬라(T. Campanella), 맬서스(T.R.Malthus), 롬브로소(C. Lombroso)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적격과 부적격과 같은 우생 담론의 지성사적 흐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을 둘러싼 논의가 분분한 요즘, 새로운 규범 문화의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필자는 뉴노멀의 내용과 방향 설정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상상태, 이를 테면

5) 김호연, 『유전의 정치학, 우생학』, 단비, 2020.

6) 김호연, 「19세기 말 영국 우생학의 탄생과 사회적 영향-국가적 효율과 우생학적 건강-」, 『이화사학연구』 36, 2008, 233~259쪽.

관성화된 인간 생명에 대한 구분 짓기와 그에 따른 편견과 차별, 혐오 문화를 벗어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I. 전근대의 우생 담론

1. 성경에 등장하는 부적격자

서구에서 고대의 부적격자 관념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성경 속 이야기다. 성경에서의 부적격자는 도덕의 구분선에 의한 것이었다. 이들에 대한 규정과 징벌은 골턴(F. Galton, 1822-1911)의 용어로 말한다면, 살 가치가 없는 존재들, 즉 부적격자로 판단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제거하는 이른바 네거티브(negative) 우생학⁷⁾에 해당한다. 우생학의 주요 타겟이 알코올 중독이나 매춘, 폭력, 사기 등 부도덕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도덕은 한 사회의 규범 문화로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으며, 다만 시대마다 대상을 달리했을 뿐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필자는 도덕과 연관한 일련의 아노미적 상태가 그 사회 주도 세력의 이념에 기대어 해석과 해법이 제시되었고, 도덕은 19세기 중반 우생학이라는

7) 필자는 지난 2006년부터 다음과 같은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 통상 positive/negative eugenics는 적극적/소극적 우생학, 긍정적/부정적 우생학, 그리고 양성적/음성적 우생학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이러한 용어보다는 별도의 번역된 용어 없이 우수한 형질을 더욱 개선하려는 우생학은 포지티브 우생학(positive eugenics)으로, 우수하지 못한 형질을 제거하려는 우생학은 네거티브 우생학(negative eugenics)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과학이자 이념 탄생의 핵심 화두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성경에 등장하는 부적격자는 많으나,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부모의 명을 어긴 자손이다. 이는 「신명기」 21장 18-21절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신명기」 21장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18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⁸⁾

여기서는 부모의 명을 어긴 자손에 대한 설명만 언급되어 있고, 어떤 문제적 행동을 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유전된 성질의 것인지 등 원천에 대한 설명 없이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문제적 행동, 즉 패역은 남성에 한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음(fornication)에 의해 태어난 사생자(bastards)에 대한 규

8) 개역개정판 NIV한역해설성경 편찬위원회, 『NIV 한역해설성경』, 아가페 출판사, 2007, 294~295쪽.(이하에서는 성경으로 통일함)

정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된다.⁹⁾

「신명기」 23장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 1 고헤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 2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 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를 보면, 불법적인 성행위에 의해 태어난 사생자와 이런 행위로 인해 이미 징벌을 받아 고헤이나 음경이 거세된 남녀는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즉 부적격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적인 성행위와 그로 인한 출산에 대해 엄격했던 것은 종교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성질의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부적격자를 상정하고 이들을 제거하는 이유는 공동체 또는 국가의 질서유지와 주도 세력이 욕망하는 정체성 확보 때문이었다. 이는 후일 서구 우생학의 역사가 보여준 바 그대로이다.

세 번째는 아말렉(the Amalekites)으로 규정된 부적격자들이다. 아말렉이 부적격한 존재로 악이나 퇴화와 연관된 것은 그들의 성 풍속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가계 내 혼인과 그에 따른 출산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과 잡혼을 했고, 남색(sodomy) 또는 구강성교(fellatio) 등 난잡한 성교를 하는 존재들로 인식되었다. 이는 고대 종교의 측면에서 보면 혼혈, 즉 피의 순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 때문에 아말렉은 악을 가진 사멸할 수밖에 없는 부적격한 집단으로 규정되었다. 잡혼과 성적 방종, 그리고 이로 인한 피의 오염을 근거로 아말렉을 부적격자로 규정하

9) 사음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이들의 음란죄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결혼한 사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간음(姦淫, adultery)이나 근친상간과는 구별된다.

고, 이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 그리고 집단적 폭력과 학살을 자행했다.¹⁰⁾ 이는 오늘날의 인종주의나 인종청소를 떠올리게 한다.¹¹⁾

2. 플라톤(plato)의 우생담론

성경에서 나타난 부적격자라는 관념과 짝을 이루는 우생 인간에 대한 욕망 역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플라톤의 주장은 골턴의 범주로 보면, 포지티브(positive) 우생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의 신념은 르네상스 시대 캄파넬라(T. Campanella, 1568-1639)를 거쳐, 19세기 미국 오네이다 공동체(Oneida Community, 1840-1880)로 이어진다.

플라톤은 『국가』(*The Republic*)에서 공화국의 시민은 교육을 받고, 제각기의 장점에 따라 통치자, 보조자, 그리고 협력자(농부나 장인)의 세 계급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서열이 지켜지고 시민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지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안정된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소크라테스는 제자인 글라우콘에게 페니키아의 전설같은 것이라며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준다.

“말씀하세요. 두려워 마시고요.” 그가 말했네.

“그럼 말하겠네. 그렇지만 어떤 성질의 대답성과 어떤 낱말들로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먼저 통치자들 자신과 군인들이, 그 다음으로는 다른 시민들이 곧이듣도록 시도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가운데 했던 것들은 그 모두가 마치 꿈처럼 이들이 겪고 또 이들에게 일어난 것으

10) 이상의 성경 속 부적격자에 대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여 재구성했다. Elof Axel Carlson, *The Unfit: A History of a Bad Idea*, N.Y.: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2001, pp. 17~20.

11) 김호연, 『유전의 정치학』, 286~301쪽.

로 여겨지겠지만, 실은 그 때 이들 자신이 땅 속에서 만들어져서 양육되고 있었고, 또 이들의 무장과 그 밖의 장비도 그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 일이 완벽하게 완결되고서야, 이들의 어머니인 대지(大地)가 이들을 지상으로 올려보냈다는 걸 말일세”¹²⁾

이 말은 시민이라 불리는 이들이 받은 교육과 훈련이란 외양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지의 자궁 속에서, 즉 적극적인 존재로서의 시민은 타고 난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 이후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통해 통치자, 보조자, 그리고 협력자가 각각 황금, 은, 그리고 쇠와 청동(구리)이 섞여 만들어졌고, 그 구성 성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주장을 폈다.¹³⁾ 오늘날로 보면, 생물학적 특질은 타고나는 것이고, 그것의 우열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날 때부터 결정된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과 양육 및 공유제에 대해 논하면서도 플라톤은 우생학과 맥락을 같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건전한 양육과 교육(paideusis)이 유지됨으로써 훌륭한 성향(자질)들을 생기게 하고, 다시 건전한 성향(자질)들은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선인(先人)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로 자랄 것이기 때문일세. 이는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듯이, 다른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출산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네.”¹⁴⁾

플라톤이 『국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익히 아는 바대로 결론에 이르러 구체화된다. 타고난 가치가 개개인 또는 집단의 서열화를 결

12) 플라톤, 박종현 역주, 『국가』, 서광사, 2007, 248~249쪽, 414de.

13) 플라톤, 『국가』, 249~250쪽, 415abcd.

14)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라. 플라톤, 『국가』, 315~351쪽.

정한다는 신념이 우생학의 원리에서 그대로 발견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설화와 과학의 차이일 뿐, 플라톤과 골턴은 생물학적 결정론을 공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즉 인종, 계급, 성별 등 인간 집단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행동규범이나 사회적·경제적 차이 등이 타고난 유전적 구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신념은 르네상스 시대 이상 사회를 꿈꾸던 캄파넬라에게로 이어진다. 캄파넬라는 서구적 이상향인 『태양의 나라』에서 인간 생식과 공유제, 그리고 생득 형질에 따른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한 바 있다. 그의 주장에서는 우생학적 생식 통제의 열망이 엿보인다. 이를 테면 ‘여자는 19세까지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못하고, 남자는 21세까지 생식행위가 불허’된다던지, 생식 허가를 사랑의 보좌관인 교사장에게 득한다거나, 또 생식을 위한 대상도 정해져 있다. “그들은 남자나 여자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와 같이 알몸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누가 성적 불능자이며, 누가 성교에 적합하다든다, 그렇지 못 하다든가를 잘 알게 되며, 성교할 나이가 되면 그들은 몸을 깨끗이 하고 세 밤마다 그 교섭을 갖게 되는데, 체력이 좋고 덕이 있는 남자는 몸집이 좋고 아름다운 여자만 상대를 하고, 뚱뚱한 여자는 마른 남자와, 마른 여자는 살찐 남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는 양자의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¹⁵⁾ 이는 모두가 성품을 포함한 타고나는 생물학적 조건을 우수하게 얻기 위해서였다.

캄파넬라는 공유제(共有制)를 논하면서 타고나는 생물학적 조건과 사회적 지위의 상관관계를 말한다. “지금까지 군무·농경·목축에 관하여 말씀드린 것으로, 어떻게 공유제가 운영되며, 모든 사람에게 일할 의무가 있고, 일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며, 일을 훌륭히 해내는 자가 고귀하며, 또한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은 일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가를 잘 이해하셨을

15) 토마스 캄파넬라, 임명방, 『태양의 나라』, 이가서, 2012, 44~46쪽.

줄로 믿습니다. 유익한데다 배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석공이라든가 대장장이는 가장 찬양을 받습니다. 때문에 이 일을 싫어하고 피하려는 자가 없지요. 이는 각자의 생득의 성질과 능력에 따라 일의 종류가 결정되고, 또한 개인의 건강을 중시하여 개인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일에는 약자를 참여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고되지 않은 일에 종사하고, 사색적인 일에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데, 그 중 우수한 이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¹⁶⁾ 간단히만 언급했지만,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인간 사회의 모습은 플라톤의 『국가』에서 언급한 바와 매우 유사하다. 캄파넬라가 플라톤과 다른 지점이 있다면, 플라톤의 이상 사회론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상 사회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⁷⁾

캄파넬라의 생식 통제와 공유제에 기초한 공산사회의 건설은 1840년대 노이스(J. H. Noyes, 1811-1886)에 의해 오네이다 공동체에서 실현되는 듯 보였다. 당시 노이스는 성경공산체제를 구축하려 노력했고, 이런 야망은 플라톤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플라톤의 우생담론과 이상 사회론은 르네상스 시대 캄파넬라를 거쳐 노이스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이다.¹⁸⁾ 노이스가 건설한 오네이다 공동체는 공식적으로 1848년 설립하여, 1849년 1월 1일 규약을 공포하고, 30여 년 간 지속하다가, 1880년 1월 1일 해체했다. 오네이다 공동체에서는 재산 공유와 공동 육아를 주창하고, 일부일처제를 거부했다. 특별히 1869-1879년 사이에는 우량종(stirpiculture) 육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선택적인 임신을 통해 58명의 아이를 출산했다.¹⁹⁾ 노이스는 이를 위해 우량종 육성 위원회를 만들

16) 캄파넬라, 『태양의 나라』, 62~63쪽.

17) 캄파넬라, 『태양의 나라』, 5쪽.

18) 더 자세한 오네이다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호연, 「미국에서의 우생학 실험: 오네이다 공동체, 1848-1880」, 『미국사연구』 49, 2019, 139~172쪽.

고, 영적·지적·육체적·정신적 우수성을 가졌다고 판단한 구성원들의 임신과 출산을 선택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우연하고 비자발적인 출산을 통제하고, 과학적 기초 위에서 계획적인 인간 생식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오네이다 공동체의 실천은 플라톤의 우생담론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고,²⁰⁾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노이스의 신학,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과 골턴의 우생학, 그리고 농업 육종가(agricultural breeders)의 이상과 실천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것이었다.²¹⁾ 이와 같은 오네이다 공동체의 우량종 육성 실험은 완전성을 지닌 존재를 과학적 기초 위에서 선택적으로 탄생시키고자 했던 우생학의 전제와 목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²²⁾

-
- 19) 공동체 설립 이후 태어난 아이는 총 98명이었고, 그 가운데 58명이 우량종 육성에 의해 출생하였다. Martin Richards, "Perfecting people: selective breeding at the Oneida Community(1869-1879) and the Eugenics Movement," *New Genetics and Society*, 23:1, 2004, p. 48.
- 20) 우량종 육성은 노이스가 천국이 즉각적으로 도래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악마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론이었고, 노이스의 우량종 육성에 의한 완전주의 공동체 건설은 분명 플라톤에게 영향을 받아 시작된 것이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 오네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대부분 농부와 노동자로 엘리트 계층도 아니었고, 군대와도 무관했으며, 교육도 철학적 훈련이 아닌 성경에 기초한 것이었다. 물론 정치적 측면에서는 노이스가 구성원들의 내면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공동체 사회의 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말이다. Clive Foss, "Plato's American Republic: John Humphrey Noyes and the Perfectionist Movement," *History Today*, 60, 2010, pp. 41~42.
- 21) J. H. Noyes, "Essay on Scientific Propagation," *The Modern Thinker*, Vol. I, 3rd ed., D. Goodman, ed., American News Co., 1870, 97-120 (Reprint Carl Jay Bajema, *Eugenics Then and Now*, Pennsylvania: Dowden, Hutchinson & Ross, Inc., 1976, pp. 54~77.
- 22) 노이스는 1660년대 뉴잉글랜드에 정착했던 초기 퓨리틴의 이상을 새롭게 부흥시키고자 완전주의 신학을 주창했다는 시각이 있다. 그는 개인과 사회적 토대 모두를 완전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우생학적 원리에 기초한 생식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L. Kern, *An Ordered Love: Sex Roles and*

III. 오나니즘(onanism)

오나니즘은 수음(手淫), 즉 자위(masturbation)를 뜻한다. 이 용어는 골턴이 우생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 18-19세기 유럽에서 퇴화(degeneration)가 사회적·도덕적 문제로 부각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퇴화는 생리학적(원인은 자위, 작업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Occupational Exposure), 알코올 중독), 도덕적(타고난 범죄성에 기인한), 정신적(정신박약이나 정신이상의 결과), 또는 경제적(빈곤에 의해 야기된 능력 부족을 지닌 가난한 사람들)인 것들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었었다.²³⁾

오나니즘은 구약성서의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인물 오난(Onan)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이스라엘 부족의 지도자인 유다는 엘과 오난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으나, 하나님이 엘을 사악하다는 이유로 죽이자 오난에게 형수와 동침을 하고, 형을 대신하여 자손을 낳을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오난은 형수와 동침은 했지만 정액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이에 격노한 하나님은 오난마저 살해해버렸다는 이야기다. 사실 오난은 자위를 했다가 보다는 질외사정을 한 것에 불과했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난의 행위는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자위로 인식하고, 이를 특별히 청소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오독한 측면이

Sexuality in Victorian Utopias—the Shakers, the Mormons, and the Oneida Community,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

23) 오나니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여 재구성했다. Carlson, *The Unfit*, pp. 23~32.

24)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편을 보면 다음과 같다. 8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10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성경, 59쪽.

있다. 18세기경 서구에서 자위는 인간 신체의 생리학적 측면과 연결하여 퇴화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당시 사람들은 정액의 손실 또는 사정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육체적·정신적 고통(illness)을 유발한다고 믿고 있었다. 물론 정액의 손실이나 사정이 육체적 허약을 야기한다는 생각은 고대부터 있던 관념이었는데, 이는 아마도 사정 이후 많은 남자들이 잠에 취하거나 쉬는 경향에서 비롯한 것 같다. 당시 정액의 손실은 크게 세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비롯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자위, 과도한 성교(성적 쾌락), 그리고 정액루(spermatorrhoea)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관성을 지니는 행위였다. 자위를 악이나 질병으로 간주하는 당시의 모든 저서에서는 자위와 빈번한 성교가 오래 지속되면 정액루(자기도 모르는 사이 정액이 흘러나오는)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정액루, 즉 정액의 손실이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은 히포크라테스 학파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고대의 의학적 설명, 즉 자위와 정액의 손실, 그리고 건강 악화의 상관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로마 몰락 이후 사라졌다가, 17세기에 이르러 다시 부활했다. 이후 자위는 종교적 악의 상징처럼 인식되다가, 1830년대를 지나면서 종교적 비난과는 거리를 두고 구체적인 의학적 질병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²⁵⁾ 이후 자위는 점차 육체적·정신적 허약성을 유발하는 생리학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졌고, 치료법도 외과적 수술보다는 식이요법,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적당한 수면 습관 같은 양생법이 선호되었다. 18-19세기 서구에서 유행했던 퇴화 관념 역시 자위와 상관 관계를 맺고 있다.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의사들이 자위와 질병의 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자위를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습관이나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²⁶⁾ 물론

25) Carlson, *The Unfit*, pp. 23~27.

26) Michael Rosenthal, *The Character Factory: Baden-Powell and the Origins of the Boy Scout Movement*, New York: Pantheon Books, 1924, p. 187; Carlson,

자위는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오해하고 있고, 많은 종교에서 그것을 악이나 죄로 보고 있다. 자위를 정신 이상이나 육체 악화 그리고 신의 징벌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오래된 믿음때문일 것이다. 우생학의 주창자들이 모럴리스트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²⁷⁾ 자위 역시 우생학적 논의에 포함된다할 것이다.

IV. 맬서스(T. R. Malthus, 1766-1834)의 인구담론

우생학과 관련하여 맬서스의 인구담론은 우생 담론의 자연화, 즉 과학화에 매우 중요한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다. 맬서스는 속성상 식물과 동물은 생존할 수 있는 수보다 많은 자손을 남기고 인간, 특히 하층 계급의 경우는 과잉 재생산을 한다고 주장했다. 맬서스는 국민의 전체 부의 증가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행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명의 증식력과 식량 증가력 사이의 불균등으로 인한 빈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인간은 자연이 명하는 바에 따라 증식하면 빈곤을 면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스스로를 억제하면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과 사유재산의 폐지를 통한 인간의 완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²⁸⁾

맬서스의 주장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자연이 조화로운 존재라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The Unfit, p. 32에서 재인용.

27) 김호연, 「미국에서의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 도덕주의자들의 실패한 기획」, 『한국과학사학회지』 31-2, 2009, 303~324쪽.

28) 문상화, 「진화론: 19세기 영국의 지배담론의 한 양상」, 『영국연구』 5, 2001, 27~29쪽.

는 사실이다. 자연은 인간 삶을 위한 조건을 제공해주는 조화로운 공간이 더 이상 아니었고, 오히려 인간 사회의 불행을 낳는 진원지가 되어버렸다. 즉 자연의 조건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그 삶은 결국에는 생존을 위한 경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다. 이제 사회는 자연의 법칙이 투영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과 사회 사이의 인식론적 간극을 제거해버렸다.

멜서스의 주장은 다윈을 거치면서 과학의 이름으로 더욱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된다. 다윈은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1859)에서 유기체의 변이와 적응의 문제를 거론하며 생존경쟁과 최적자생존 원리를 기초로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을 논했다. 즉 다윈은 모든 생물은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후손을 남기기에 적합한 생물들이 살아남아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생물이 지구를 장악하게 된다고 보았다.²⁹⁾ 이는 자연의 법칙이고, 진화는 그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다윈은 『종의 기원』 제5판부터 최적자생존이라는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의 용어를 차용하여 진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 시작했다. 스펜서는 1852년 최적자생존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그는 진화에 있어서 적응을 강조하며 생존경쟁과 부적격자의 제거를 통해 진화가 달성된다고 주장했다.³⁰⁾ 이는 사회도 마찬가지다. 멜서스의 영향이었지만, 스펜서에게 중요한 문제는 인구 압력에 대한 비판론적 견해가 아니라 진보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인구과잉은 생존경쟁을 야기하며, 생존경쟁에서의 최적자생존은 장기적으로 자연선택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29)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대해서는 Charles Darwin, J. W. Burrow (ed.),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New York: Penguin Books, 1968[1859], pp. 153~155.

30) Herbert Spencer, "A Theory of Population, Deduced from the General Law of Animal Fertility," *Westminster Review* 57, 1852, pp. 389~390.

의 사회선택(social selection), 즉 사회적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스펜서의 논리는 많은 이들에게 생존경쟁에서 승리한 적자의 생존을 자연의 섭리이자 사회적 필연으로 인식시켰고, 다윈이 최적자생존이란 용어를 사용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³¹⁾ 이제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 진보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었고, 사회 역시 자연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화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사회와 자연 사이의 인식론적 장벽이 무너지면서, 자연의 법칙에 기대어 인간 사회를 유기체적 자연의 모습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했다. 우생 담론이 자연화되고, 우생학이라는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이러한 관념이 자리를 잡고 있다.

다윈은 적자의 생존을 자연의 법칙으로 상정함과 동시에 부적격자의 제거에 대해서도 “야만족에서는 심신이 나약한 사람들은 신속히 사라졌고, 생존자들은 일반적으로 강인한 건강상태를 통해 식별되었다. 우리 문명화된 인간들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약자가 제거되는 경로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바보나 장애인, 환자 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빈민 구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며, 의사들은 개개인의 수명 연장을 위해 모든 과학을 동원한다. [...] 따라서 문명사회에서는 나약한 사람들이 무한정 증식될 수 있다. 사육동물의 생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약자의 보존이 인간 종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³²⁾ 라며 그의 견해를 피력했는데, 이는 사실상 우생학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31) James Allen Rogers, “Darwinism and Social Darwin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36, no. 2, 1975, p. 267.

32) Charles Darwin,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8[1874, 2nd edition], p. 138.

V. 18세기-19세기 퇴화론

우생학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퇴화이론은 모렐(Benedict Augustin Morel, 1809-1873)이 그 선구라고 할 수 있다. 모렐은 인간 종의 퇴화를 의학적 차원에서 다루었고, 이는 『퇴화론』(*Treatise on Physical, Intellectual, and Moral Degeneration in Humans and the Conditions Producing these Detrimental States*, 1857)에 서술되어 있다. 당시 모렐은 퇴화가 많은 원인들로부터 야기된다고 믿었지만, 주로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 이를 테면 알코올, 마취제(narcotics), 담배, 맥각중독(ergotism),³³⁾ 유기물질에 내포된 독성, 매독·결핵·갑상선종(goiter)같은 만성질병에 의해서도 발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퇴화는 유전되고, 어떤 가계에서는 반복되며, 이는 그 가계의 절멸로 이어진다고 모렐은 보았다. 모렐은 생리학적으로 퇴화를 유발하는 주요한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천치(idiot)나 얼간이(imbecile) 같은 정신 장애, 얼굴이나 육체의 성흔(stigmata), 그리고 행동으로 발현되는 주정주의(emotionalism)나 비관주의(pessimism)가 그것이다. 정상 행동으로부터의 이탈, 즉 퇴화는 양방향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모렐은 생각했다. 퇴화는 병리학적인 것으로서 나약한 심성을 가진 자들과 천재성을 가진 자들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전자는 열등한 퇴화이고, 후자는 우월한 퇴화에 해당한다. 모렐은 개인의 퇴화는 사회의 퇴화와 연동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중 보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직업 안전, 자학(self abuse) 금지 교육, 알코올이나 마취제(환각제)같은 독성 물질

33) 급성 맥각 중독은 구토, 복통, 팔다리와 가슴의 동통 따위의 증상이 나타나고, 만성 맥각 중독은 경련과 팔다리 조직이 괴사한다고 한다.

의 금지를 권고했다. 모렐은 자위가 퇴화의 한 원인일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주된 퇴화의 원천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는 자신이 내과의가로 일하면서 얻은 임상경험에 의한 것이었고, 퇴화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정신적·육체적·도덕적 퇴화가 보통 환경적 원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³⁴⁾

모렐의 이론은 19세기 중반 이후 많은 사회 사상가들과 의사들에게 수용되었다. 골턴 역시 모렐의 퇴화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모렐은 당시 퇴화를 병리적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는데, 골턴은 이를 자연선택의 장애로 인식했다. 만일 진화가 환경과 개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퇴화가 있게 마련이다. 즉 생존경쟁에 의한 최적자생존은 필연적으로 퇴화하는 개체를 전제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인간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이고, 이에 따라 골턴은 문명화의 결과 생존경쟁이 약화되어 부적격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의 퇴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골턴 우생학의 주요한 지적 토대가 되었다. 골턴의 퇴화 개념은 유전론적 우생학자들에게는 부적격자의 제거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환경론적 우생학자들에게는 인종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이라는 생각을 품게 만들었다. 당시 대부분의 우생론자들은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약점 같은 가시적 특징들을 유전적 특질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우생 인간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형성하려 했다.³⁵⁾

퇴화론을 하나의 생물학 이론으로 정착하려는 노력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상징적인 인물로는 범죄인류학자인 롬브로소(Caesar

34) 이상은 다음을 참조했다. Carlson, *The Unfit*, pp. 40~41.

35) 김호연, 『유전의 정치학』, 259~260쪽.

Lombroso, 1836-1909)가 있다. 롬브로소는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결정론을 지지하는 효과적인 모델 찾기에 천착했던 인물이다. 이는 그가 의사 생활 초기에 범죄자를 해부하면서, 이들의 두개골 후두(occiput)에 비정상적인 특징이 있음을 발견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때 그는 범죄와 인간 뇌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이를 추적하면 범죄자가 누구인지 미연에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다윈의 진화 사상을 적용시켜 범죄행동을 설명하였다. 그는 범죄행위가 초기 선조들이 가졌던 유전적 특징이 재현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인간의 행동은 귀선유전(atavism)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선조의 과거를 품은 배아(embryo)가 우리들의 유전형질 속에 들어 있고 그 과거는 불행한 개인들에게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보통의 원숭이나 미개인들이 할 만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행동은 우리 문명사회에서는 범죄로 간주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선천적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원숭이와 흡사한 해부학적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범죄자, 야만인, 원숭이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해부학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보통 절도범들은 표정이 풍부한 얼굴과 능숙한 손동작, 결눈질을 잘하는 작은 눈, 두텁고 촘촘한 눈썹, 삐뚤어진 코, 듬성듬성한 턱수염과 머리숱, 움푹 들어간 이마 등을 가지고 있고, 강간범들의 특징은 돌출된 귀와 반짝이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며, 상습 살인범들은 큰 매부리코와 강한 턱, 넓은 광대뼈와 검고 술이 많은 곱슬머리라는 식이다.³⁶⁾ 이들의 귀선유전은 육체적·정신적 측면 모두에서 나타나고, 이는 육체적 징후, 즉 롬브로소가 낙인(stigma)이라고 부른 징후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범죄적 행동은 정상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낙인을 통해 해부학적 특징을 유형화

36) 체자레 롬브로조, 이경재 옮김, 『범죄인의 탄생』, 법문사, 2010, 74~75쪽.

한다면 선천적 범죄자를 쉬이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범죄자는 타고나는 것(born criminal)”이라는 정의가 성공적으로 내려질 수 있었다.³⁷⁾ 롬브로소의 범죄인류학은 범죄자와 그를 둘러싼 환경의 역할에 관한 생물학적 결정론의 기본적인 주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롬브로소의 이론은 19세기를 풍미했던 골상학(phrenology)과 연결되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당시 서구 사회에서는 생물학적 특성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골상학이나 두개계측학(craniometry)은 하나의 현상처럼 당대의 사회 사상가들을 매혹시켰다. 이는 롬브로소가 주장한 바, 범죄적 경향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이나 성격 등이 엄밀한 과학으로 수립되는 실증적 접근 방식에 의해 밝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믿음은 이른바 ‘숫자의 유혹’(allure of numbers)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기초한 것이었다. 당시 많은 생물학자들과 의사들은 엄밀한 측정이 논박할 수 없는 정확함을 보증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정량화에 근거한 자신들의 주장이 단지 주관적인 사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뉴턴 물리학과 등가인 진정한 과학으로 이행한다는 신념을 가졌다. 그들은 자신들을 수(數)의 중복이자 객관성의 사도로 간주하고 있었다. 두개계측학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의식을 가진 이데올로그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백인 남성들이 공유하는 안락한 편견, 즉 흑인, 여성,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의 가혹한 명령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를 걸머지고 있다는 믿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해주었다.³⁸⁾ 우생학의 창시자 골턴 역시 생물측정학(biometrics)을 창안하여 자신의 이론을 과학성을 담보한 것으로 정당화하려했던 배경에는 당시의 이러한 흐름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⁹⁾

37) 골드, 『인간에 대한 오해』, 220쪽.

38) 김동광, 『생명의 사회사』, 궁리, 2017, 77~78쪽.

39) F. Galton, *Hereditary Genius: An Inquiry into Its Laws and Consequences*,

에밀 졸라(Emile Zola, 1840-1902)는 19세기에 유행하던 퇴화론을 기초로 루공-마카르(the Rougons and the Macquarts, 1871-1893) 전서 스무 권을 펴냈다. 이 소설은 가상의 두 가계, 즉 루공과 마카르 집안의 유전과 그 몰락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퇴화를 다룬 소설이다. 당시 에밀 졸라에게 영감을 주었던 연구는 생브리(Saint-Brieve)의 작업이었다고 한다. 생브리는 브리타니 지역에 거주하던 케란갈家(the Kerangal)를 조사하여, 그 가계에서 1830년에서 1890년 사이 살인자 7, 매춘부 9, 그리고 화가, 시인, 조각가, 배우, 음악 각 1, 그리고 몇몇의 맹이 있었음에 주목했고, 졸라는 이를 바탕으로 유전과 퇴화와 사멸의 상관성을 스무 권의 소설을 통해 보여준 것이었다.⁴⁰⁾ 졸라의 소설은 미국에서 우생학 운동이 주크家(the Jukes Family)를 비롯한 여러 가계 조사 연구에 바탕을 두고 발전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더그데일(Richard L. Dugdale)의 『주크家: 범죄, 빈궁, 질병, 그리고 유전 연구(“The Jukes”: A Study in Crime, Pauperism, Disease, and Heredity, 1877)』는 더그데일이 13개주의 구치소 수감자들을 인터뷰한 뒤, 몇 세대 이전의 가계를 추적해 가족의 범죄 경력을 조사한 결과였다. 주크(Juke)라는 남성은 폭력, 살인, 강간, 그리고 강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었다고, 당시 그의 명성은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다. 더그데일은 주크를 모델로 연구를 진행하여 주크 가계의 범죄 행위 경향은 유전된다는 결론을 얻었다.⁴¹⁾

London: Macmillan, 1892[1st. 1869].

40) M. Nordau, *Degeneration*, D. Appleton&Co., New York, 1895, p. 496; Carlsson, *The Unfit*, p. 50에서 재인용. 졸라의 소설은 19세기 당시 서구에서 등장한 여러 문학 작품들, 이를 테면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서구에서 19세기 중반 다윈의 진화론이 진화와 퇴화를 둘러싼 논의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당시의 문학 작품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41) R. L. Dugdale, “*The Jukes”: A Study in Crime, Pauperism, Disease, and Heredity*, New York: G. P. Putnam’s Son, 1877, p. 66.

퇴화에 대한 일련의 논의들은 우생학을 생물학적 논의에 가두지 않고 사회적 차원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었고, 이는 맬서스가 주장한 바, 필연적으로 사회를 적격자와 부적격자 사이에 생존경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인간의 모든 특질은 타고난 것으로 고정되었다고 믿어지기 쉬웠고, 점차 퇴화는 개인에서 사회 집단으로 확장되어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부랑자(tramp), 빈곤자, 매춘하는 자, 알코올중독자 그리고 범죄자들이 퇴화의 사례들이고, 이들은 정신박약이나 정신이상으로 인해 퇴화자가 된다고 믿어졌다.⁴²⁾ 개인이 아닌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부적격한 존재들은 19세기 이후 서구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문제 심화가 야기한 부산물이었다. 이제 그들은 국가 효율을 저해하고, 도시의 악의 원천으로서 위험한 존재들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들은 국가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부적격한 존재임이 부각되었다. 우생학은 과학의 이름으로 이를 정당화했다.

VI. 나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 취향, 비정규직, 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혐오는 기본적으로 편견에서 비롯하고, 편견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다. 편견에 기초한 혐오는 나쁜 인식이자, 틀린 생각이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는 정상과 비정상이 따로 있고, 이는 우열로 가를 수 있으며, 이로써 세상에는 적격

42) C. B. Davenport, *Heredity in Relation to Eugenics*, New York: Henry Holt, 1911.

자와 그렇지 못한 타자가 있다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때때로 유사-과학적 논리에 기대어 자명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살아야 할 생명과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논리로 확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사회의 규범 문화로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기회와 결과의 불평등마저 지극히 당연한, 마치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것처럼 인식할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우생학이 보여준 폐해를 고스란히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⁴³⁾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등장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다. 필자는 뉴노멀의 내용과 방향 설정에 있어, 디지털 기술에 초점을 둔 논의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범 문화에 대해 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캉길렘(G. Canguilhem)에 의하면,⁴⁴⁾ 비정상(anormal)은 비-정상(a-normal)이므로 정상의 정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것이고, 비정상적 상태는 관계적 상황에서 발현되며,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규범이 어떤 가치를 포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즉 새로운 정상상태로서의 뉴노멀을 말하려면, 우리가 처한 비정상적인 상태들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이는 정상상태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짓는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혐오 문화의 기저에 뿌리를 틀고 있는 우생학적 구분 짓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바이러스가 깨닫게 해 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범 문화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파농(F. Fanon)은 “나는 철학이 사람을 구조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이가 약삭같이 흑인들도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성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지성이 누구를 구해준 일이 없다고 했다. 이는 사실이니, 왜냐하면, 지성과

43) 김호연, 『유전의 정치학』, 5~6쪽.

44) 조르주 캉길렘,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인간사랑, 1996.

철학의 이름으로 인간의 평등을 선포했어도 사람들은 또한 바로 그 이름으로 평등의 절멸을 결정하기 때문”⁴⁵⁾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필자는 우리의 지성이 정의와 평등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필자의 후속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021.10.26. 투고 / 2021.11.22. 심사완료 / 2021.12.15. 게재확정)

45) 프란츠 파농, 노서경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문학동네, 2014, 30쪽.

[Abstract]

History of Eugenical Discourse in Western

Kim, Ho-ye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utline the history of eugenic discourse, which can be called a transhistorical mentality, with a focus on Western society. This is due to the judgment that the eugenics discourse is inertially located at the base of the social ideology of superiority and inferiority/fit and unfit, which is also deepening in our society, and the culture of hate. Thanks to eugenics that appeared in the mid-19th century, the eugenic discourse is exercising more powerful power by naturalizing and justifying the dichotomous way of thinking about humans in the name of science. Basically, eugenics discourse is deeply related to the normative culture of a society. Therefore, an understanding of the incompetent or dominant person in a particular era can be a barometer for understanding the ruling ideology of a society.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get an implication for contemplating the direction of a new normative culture these days, when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surrounding the new normal in the post-corona era.

□ Keyword

the Unfit, the Fit, the Bible, Plato, Campanella, Oneida Community, Malthus, Onanism, Degeneration Theory, Eugenics

[참고문헌]

- 개역개정판 NIV한역해설성경 편찬위원회, 『NIV 한역해설성경』, 아가페 출판사, 2007.
- 김호연, 「19세기 말 영국 우생학의 탄생과 사회적 영향 -국가적 효율과 우생학적 건강-」, 『이화사학연구』 36, 2008.
- 김호연, 「미국에서의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 도덕주의자들의 실패한 기획」, 『한국과학사학회지』 31-2, 2009.
- 김호연, 「미국에서의 우생학 실험: 오네이다 공동체, 1848-1880」, 『미국사연구』 49, 2019.
- 김호연, 『유전의 정치학, 우생학』, 단비, 2020.
- 문상화, 「진화론: 19세기 영국의 지배담론의 한 양상」, 『영국연구』 5, 2001.
- 스티븐 제이 골드, 김동광 옮김, 『인간에 대한 오해』, 사회평론, 2003.
- 염운옥, 『낙인 찍힌 몸: 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 돌베개, 2019.
- 조르주 캉길렘,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인간사랑, 1996.
- 체자레 롬브로조, 이경재 옮김, 『범죄인의 탄생』, 법문사, 2010.
- 토마소 캄파넬라, 임명방, 『태양의 도시』, 이가서, 2012.
- 프란츠 파농, 노서경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문학동네, 2014.
- 플라톤, 박종현 역주, 『국가』, 서광사, 2007.
- anonymous, *ONANIA, or the Heinous Sin of Self-Pollution and All Its Frightful Consequences in Both Sexes, Considered*, 18th edition, London: Charles Corbett, 1756.
- C. B. Davenport, *Heredity in Relation to Eugenics*, New York: Henry Holt, 1911.
- Charles Darwin, J. W. Burrow (ed.),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New York: Penguin Books, 1968[1859].
- Charles Darwin,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8[1874, 2nd edition].
- Elof Axel Carlson, *The Unfit: A History of a Bad Idea*, N.Y.: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2001.
- F. Galton, "Hereditary Talent and Character," *Maxmillan's Magazine* 12, 1865.
- F. Galton, *Hereditary Genius: An Inquiry into Its Laws and Consequences*, London: Macmillan, 1892[1st. 1869].
- Herbert Spencer, "A Theory of Population, Deduced from the General Law of Animal Fertility," *Westminster Review* 57, 1852.
- Howard L. Kaye, *The Social Meaning of Modern Biology: From Social Darwinism to Sociobiology*, 1997(하워드 L. 케이 지음, 생물학의 역사와 철학 연구모임 옮김, 『현대생물학의 사회적 의미』, 뿌리와 이파리, 2008).
- J. H. Noyes, "Essay on Scientific Propagation," *The Modern Thinker*, Vol. I, 3rd ed., D. Goodman, ed., American News Co., 1870(Reprint Carl Jay Bajema, *Eugenics: Then and Now*, Pennsylvania: Dowden, Hutchinson & Ross, Inc., 1976).
- J. H. Noyes, *Scientific Propagation*, 1870.
- James Allen Rogers, "Darwinism and Social Darwin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36, no. 2, 1975.
- L. Kern, *An Ordered Love: Sex Roles and Sexuality in Victorian Utopias—the Shakers, the Mormons, and the Oneida Community*,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

- Leopold Deslandes, *On Onanism and Other Sexual Abuses Considered in Relation to Public Health*, 1839(프랑스어판은 1835).
- Martin Richards, "Perfecting people: selective breeding at the Oneida Community (1869/1879) and the Eugenics Movement," *New Genetics and Society*, 23:1, 2004.
- R. L. Dugdale, *"The Jukes": A Study in Crime, Pauperism, Disease, and Heredity*, New York: G. P. Putnam's Son, 1877.

